

**성폭력,
성폭력,**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학내에서 성폭력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피해자가 말을 못해서 넘어간다. 설령 피해자가 말한다고 하더라도 묵인돼 버리고 공론화는커녕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성폭력으로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남성중심적인 문화는 오히려 계속 재생산될 뿐이고, 이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성폭력이 자신만의 개인적 문제라 치부해버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어느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 다행히도 그 여성은 이것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 여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주위 사람들과 당사자들은 이 성폭력 문제를 풀어나기 위한 실마리를 모색하고자 했다. 그리고 연세인 모두에게 알려져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첫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 사건과 해결과정을 공개한다.

< 사건 경위와 그 이후 과정 >

서로 잘 알고 함께 활동도 하곤 했던 두 남학우(93학번과 94학번)와 한 여학우(94학번)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얘기하는 과정에서 두 남성과 여성은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늦어져서 여성은 술집에서 나와 집에 가겠다고 했으나, 남성(93학번)은 계속 여성을 설득하겠다고 길거리로 함께 나섰다. 남성은 가려고 하는 여성

을 붙잡았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결국 폭력을 휘둘게 되었고, 물리적 폭력과 더불어 성적 모욕을 줬다. 다른 남성(94학번)은 이 와중에서 옆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며, 결국 성폭력의 방조자가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세 명은 다시 만났으며, 이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그 후 사과를 하고 지속적으로 공론화시킬 것을 피해자와 총여학생회에 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과 약속을 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학생회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1월 말이 되어서야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었다.

이 성폭력 사건이 단순한 하나의 '해프닝'으로만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12월 6일에 있었던 간담회에는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몇 명, 가해자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몇 명,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몇 명이 모였다. 간담회는 가해자와 방조자의 진술로 시작됐으며, 이어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들이 나왔다.

▶ 성폭력의 원인을 술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여성이 남성보다 열위의 위치에 있는 구조에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성폭력의 원인이 아니라 단지 무의식 속에서 내재되어 있던 여성을 대상화하는 사고를 들어내는 역할을 할 뿐이다.

▶ 소위 말하는 '운동권' 내부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의 문제는 심각하다. 진보적 이라 자칭하는 사람들도 가부장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운동권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은 운동의 '대의' 속에서 묻혀지기 쉽상이다. 만약, 사회 변혁과 진보를 진정 원한다면, 여성과 남성이 진정 평등한 공존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면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묵인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의 지속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성폭력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 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모임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고는 성폭력에 대한 ‘무관심’을 부추켜왔다.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 모든 남성은 과거에 또는 현재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가하고 있으며 또 모든 여성들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성폭력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학내에서 성폭력 자치규약제정 운동을 벌려나가겠다면, 일상 속에서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모임도 변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은 단순히 불평등한 성적 차이만으로 인해 일어난 것은 아니다. 한 선배가 자신의 의견을 후배에게 폭력적으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억압적 위계 질서에 입각한 대학문화(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운동권들의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차이가 차별이 되고 결국 폭력까지 휘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폭력과 비민주성에 대해 싸우고 있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내부의 비민주성에 대해서 애써 눈감고 있지 않은가? 특히, 이것이 선배와 후배의 사이일

때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선배가 경험이 더 많다고 해서 자신이 후배보다 우월하다는 사고는 이 사회의 억압적 위계질서를 재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위의 이야기들은 그 날 나왔던 말을 요약해본 것이다. 이것은 몇몇 활동가들의 개인적 확신으로만 끝나서 안되며, 새로운 운동의 방식들을 모색하고 새로운 대학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결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열 몇 명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

다. 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논쟁 속에서만 실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간담회가 성폭력의 문제를 종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오히려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어느 공간에 몸을 담고 있든 모든 연세인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12월 6일 '성폭력에 관한 간담회'에 참가했던 학우 일동

10월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제 10대 총여학생회(준)의 입장

10월, 두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 성폭력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려던 사람(선거를 하기 직전이었으므로)에게 얘기했고 이것을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해자, 피해자도 모두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피해자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순결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하게 된다. 그 침묵 속에서 여성은 성폭력이 자신만의 문제라 생각하게 된다. 설령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여성들을 극단적으로 죽음으로까지 몰고가게 한다(‘택시운전사/MBC사건’에 이어

그 직후에 어느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자살을 했다). 99.9%의 여성이 언젠가는 성폭력을 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문제이며, 그러한 만큼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싸워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

성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그 속에서 여성이 대상화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한 만큼, 이것은 소수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는 논의와 일상 속에서의 실천들이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 모

두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순응하도록 길들여져 왔다. 자신의 일상 생활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의 작은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발걸음이 될 수 있다.

10월 달에 있었던 사건 이외에도 연세대 내에서 수많은 성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도.....10월에 있었던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담회' 자리가 다른 사건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여성이 더 이상 억압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첫 단추가 되었으면 한다.

연세대학교에는 성폭력 상담소(361-2118)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한 총여학생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할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 나아가 학내에서 성폭력을 규제할 수 있는 학칙을 제정하는 데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학생회관 3층에 있는 총여학생회실(361-3645)은 학생회뿐만

아니라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여러 단체들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들을 나누기 위한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준)